

보도자료	2021년 7월 1일(목)	8매
제목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병원비백만원연대 출범	
문의	오건호 병원비백만원연대 집행위원장	010-4311-0743
	이명묵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	010-4260-0388
	유원선 함께걷는아이들 사무국장	010-4945-2498
	강지현 병원비백만원연대 간사	010-7171-3970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병원비백만원연대		

돈 있는 만큼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받는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병원비백만원연대” 출범
백만원 상한제 실현을 위한 토론회도 열어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병원비백만원연대 출범식 사진)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80%가 민간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현실에서, 병원비 불안을 해소하고, 전 국민 건강권 보장운동을 시작하는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병원비백만원연대>가 6월 30일 출범식했습니다. 행사 2부에는 출범 기념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병원비백만원대에는 2016년부터 활동한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를 확대개편한 조직으로 현 30여개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날 출범식에는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오승환 회장이 참여해 축사를 전했습니다. 오승환 회장은 처음 축사를 맡은 것이 “연대운동에 사회복지사들이 더 주도적으로 참여 하라는 시대적 명령”이라고 생각한다며, 적극적인 활동 의지를 밝혔습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아픈 만큼 치료받자는 당연한 주장이 아직 이뤄지지 못해 아쉽다”며, 꼭 필요한 제도적 변화를 이끌기 위해 국회 내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고영인 의원은 “정치인으로서 의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한다며, “병원비백만원

과제를 제대로 매듭짓기 위해 증세문제도 과감하게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며, “정의당을 비롯 진보 진영과 의식을 갖고 정치세력화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토론회 주요 내용

좌장	오건호 (병원비백만원연대 집행위원장)
발제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
토론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토론	조민우 (울산대 예방의학과 교수)
토론	공인식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과장)
토론	이창곤 (한겨레 선임기자)

2부 프로그램으로 전 국민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발제를 맡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김종명 공동대표는 아래와 같이 100만원 상한제의 단계적 실시에 따른 소요재정 추계치를 발표했습니다.

100만원 상한제 실시 연간 소요재정 추계(2019년 기준)

1. 18세 미만 아동 대상 실시 - 3천억~4천억원

2. 입원 수술비 중심 전 국민 대상 실시 - 4조 9천억

소요재원*	수혜 대상자 수	진료비 기준
4.9조원	214만명(최대기준)	300~500만원 이상자부터 적용

3. 전체 의료비 전 국민 대상 실시 - 8조원

소요재원*	수혜 대상자 수	진료비 기준
8.0조원	614만명(최대기준)	300~400만원 이상자부터 적용

토론자로 참여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신약, 신의료기기 등이 발생하면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하고, “간병비가 너무 비싸다보니 실직상태에서 간병을 하는 인원도 증가하고 있다”며, 현재 재난적의료비지원으로 보완되지 않는 부분이 여러 방면에서 늘어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울산대 예방의학과 조민우 교수는 문재인케어에서 비급여의 급여화에 대한 고민들이 있다며, 정말 필요한 급여화인지, 의료 공급 과잉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공인식 과장은 “문재인케어를 통해 상급병실료, 초음파, MRI진단, 치료에 필요한 서비스의 급여화를 진행하고 있다”며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해 취약계층 병원비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선별급여나 비급여 지원이 국고와 연결되어 있

는 부분을 어떻게 변경할 것인지”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제도의 상호보완적 지점을 살펴 공사보험의 연계 방안에 대해 국회가 입법과제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한겨레 이창곤 선임기자는 정책이 얼마나 바람직한가의 측면에서 보면 “병원비 백만원 상한제가 더 바람직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의료체계혁신, 공사보험 관계 등을 사전적으로 풀어내지 않으면 부담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짚으며 헌법적 가치인 국민의 건강권 실현을 위해 정교한 전략과 담론, 구성 조건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 **토론회 자료집과 관련자료(링크를 클릭하면 연결됩니다.)**

토론회 자료집	https://bit.ly/630병원비연대자료집
토론회 녹화영상	https://youtu.be/biCTmoL86WI
토론회 사진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4mWObWQIP9eoHCPxzFI8n5LrTK-2j4xe?usp=sharing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 백서	http://bit.ly/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_백서

병원비 걱정없이, 아픈만큼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를 위한 걸음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병원비백만원 연대

출범식 & 토론회

일시 2021년 6월 30일 낮 2시

장소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2호선 홍대입구 2번출구)

행사 1부.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 경과보고 & 병원비백만원연대 출범식
2부.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병원비 백만원을 위한 토론회

발제 김종명(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
토론 안기종(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조민우(울산대 예방의학과 교수)
공인식(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과장)
이창곤(한겨레 선임기자)

주최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어린이부터어르신까지병원비백만원연대



위 행사는 당일 '줌'과 '유튜브'로 생중계 됩니다.
신청하신 분들께는 참여할 수 있는 링크를 행사 전에 보내드립니다.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병원비백만원연대’ 출범선언문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로 가는 대장정에 또 하나의 디딤돌을 놓고자 한다.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3만 달러를 이미 돌파했고 세계 경제 강국 10위권이란 위상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은 이 나라를 ‘헬조선’이라 하고 많은 국민들은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빈부 초격차 불평등 사회이고 이로 인한 국민 간 분열이 깊어지고 있음에도 국가에서 마땅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다보니 국민은 각자도생 고난의 길을 걷는 형국이다.

이는 최근 수십 년 간 진행되어 온 시장만능 사회경제체제의 폐단이고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책임이기도 하다. 그러한 민생고 중 하나가 국민 의료보장의 문제인데, 전 국민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도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여 연간 약 50조원의 가계지출을 감당하고 있다. 국가가 국민의 건강권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면서 나타난 이중고의 문제이다. 결과적으로 국민은 병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비를 걱정하며 사는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고자 “어린이부터” 건강권을 보장하자는 운동을 2016년에 시작하였다. “아이의 생명을 모금에 의존하는 것이 맞는가?”란 사회적 질문을 던지고 그 대안을 국민과 함께 찾았고, 국민들 공감 속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에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던진다. “국민건강보험이 있음에도 대부분의 국민이 사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정상인가?” 이것이 비정상이라면 정상화의 길을 함께 찾아보자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도’를 제안한다. ‘100만원 상한제’는 모든 국민은 자신의 병원비를 1년에 100만 원까지만 부담하고, 그 이상은 국민건강보험 체제로 해결하는 방법이다. 선진 복지국가에서 실시하는 무상의료 정책 대부분이 이러한 원리로 운영되고 있다.

아프나 안 아프나 병원비 불안으로 민간보험에 가입하여 일 년에 200~300만 원 씩 납입하는 것과, 민간의료보험에 비해 훨씬 적은 금액을 국민 모두가 조금씩 건강보험료로 더 내서 앓을 때만 일 년에 100만 원까지만 부담하는 것 중 어느 것이 국민에게 유익한 선택 인지는 어린 아이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일이다.

우리는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운동을 국민과 함께 열어가고자 한다. 100만원 상한제는 실손보험에 의지하는 국민의 병원비 불안문제를 일거에 해소할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권 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인하는 것이고 사회연대 공동체를 경험하여 다른 영역의 복지담론을 활성화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문제를 해결하자는 우리 사회의 오랜 숙제에 많은 국민과 단체가 관심 가져왔다. 아직 다 한 자리에 모이지 못했으나 오늘 ‘병원비백만원연대’를 출범하는 것은 32년 전인 1989년 7월 1일에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전국민 의료보험’이 확대되었고, 또한 2000년 7월 1일에는 이전 직장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이 통합해 현재의 국민건강보험이 통합 출범한 날이기 때문이다.

오늘을 기점으로 병원비백만원연대는 더 많은 국민과 더 많은 단체들의 힘이 모아 병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비를 걱정하며 사는 국민을 구하고, 민간 실손보험이 의료서비스체계를 시장화시키는 병폐를 멈추도록 할 것이다. 더 이상 병원비로 눈물 흘리는 이웃이 없도록 할 것이다. 국민의 건강권 보장에서 만큼은 불평등이 없도록 할 것이다. 돈 있는 만큼 치료받는 세상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받을 수 있는 세상을 국민과 함께 만들 것이다.

- 병원비 부담을 해소하고 건강권을 보장하는 100만원 상한제를 시행하자.
- 매년 국민이 50조원씩 부담하는 사보험비 지출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자.
- 정부는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를 향한 국가계획을 수립하라

2021년 6월 30일

어린이부터어르신까지 병원비백만원연대

● 출범식 및 토론회 사진



1부 본 행사로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의 활동을 이어받아 전 국민 병원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병원비백만원연대> 출범식이 열렸다. 약칭 <병원비백만원연대> 출범식 참가자 단체 사진.



2부 프로그램으로 열린 <전 국민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토론회>에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김종명 공동대표가 발제를 하고 있다.



토론회 주재하는 병원비백만원연대 오건호 집행위원장

토론회 발제하는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김종명 공동대표



토론하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토론하는 한겨레 이창곤 선임기자



토론하는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공인식 과장

토론하는 울산대 예방의학과 조민우 교수